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회 몽골감리교 현지인 목사 안수식

한국감리교회가 몽골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헌신의 열매

제3회 감리교 몽골 현지인 목사 안수식과 준회원 허입식이 지난 8월 30일(화) 오전10시, 200여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위치한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담당목사 어등가와 선교사)에서 거행되었다. 소그라 목사를 비롯해 총 3명의 몽골인 목사가 새롭게 안수받았고 4명의 전도사가 준회원에 허입되었다. 이번 안수식으로 현재 몽골 현지인 목사는 20명, 준회원은 4명이 되었다.

이번 몽골 현지인 목사 안수식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위원장 김정석 감독), 몽골감리교선교사사회(안수위원장 김중진 목사), 몽골 미션(회장 최이우 목사), 몽골선교회(회장 이인선 목사), 감리교 몽골 현지지도자 훈련원(원장 신현구 목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안수식은 본부 선교국 선교행정부장인 문희인 목사 진행으로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이 집례하고 후원선교회, 선교사회 목회자들이 보좌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요한복음 3장 16~17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전했다. 목사 안수자들에게 복음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성만찬을 집례했다. 성만찬은 광림교회에서 제작한 개별 성찬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광림교회와 김정석 감독은 몽골 선교사와 몽골인 목사, 이번에 안수받은 목사와 준



회원 허입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하며, 이 자리에서 안수자들과 허입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정석 감독은 현지 선교사들과 몽골선교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울란바토르 외곽에 조성중인 신도시를 방문해 교회 개척 후보지를 둘러보았다. 이 지역은 도로가 새롭게 개통되어 도시 중심부와의 연결이 편리하고, 석탄산업이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몽골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관계와 선교사 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목사 안수식은 한국 감리교회가 몽골에 파송한 16가정 26명의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헌신의 열매이다. 더 나아가 2023년 몽골 감리교신학교 개교 20주년, 2024년 감리교 몽골선교 30주년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몽골 감리교회를 통해 예수를



안수받은 몽골 목사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몽골민족과 몽골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수식이 거행된 광림어르비트 미션센터는 광림교회가 2019년에 새롭게 봉헌한 미션센터로 광림한국문화원과 자원봉사센터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의 모임 장소, 몽골 현지 사역자들의 교육과 소통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

“...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립보서 4장 9절)

우리는 많은 후회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많아지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자기 불신은 곧 자기 학대를 불러오고 이는 외로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절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로 나아가면 참된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참 기쁨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강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강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있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 둘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염려, 셋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넷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염려, 다섯째 맡기지 못함으로 인한 염려, 여섯째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염려, 일곱째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고 집착하고 있다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근심과 걱정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빌립보서 4장 4-9절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막연한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염려를 그치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두고, 항상 우리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 M 바운즈 목사님은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며, 기도는 미래를 내다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와 기도가 있는 삶은 현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습관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원한다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미래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까지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락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은 의지의 표현으로 믿음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곧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성적, 감성적, 의지적,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인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행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삶에서 순종으로 행할 때,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에서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으십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살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동탄광림교회> 내년 초 완공 예정 ... 공정률 20%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도 순항중



동탄광림교회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동탄광림교회>

동탄. 경기남부지역 복음의 전초기지
동탄광림교회 건축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기공예배를 드린 동탄광림교회는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의 발견으로 한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현재는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친 상태다.

동탄광림교회는 내년 초 완공 예정으로 경기도 화성시 목동 화성동탄2지구에 위치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77㎡(약 425평) 규모로 30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자모실이 지하 1층에 자리한다. 1층에는 건물 로비와 주차장, 2층에는 식당과 교육시설인 다목적실과 사무실, 3층에는 소예배실과 4개의 소그룹실을 만들어 친교와 교제의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또 옥상에는 초화류를 식재해 주변 녹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화성 동탄과 경기남부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동탄광림교회는 광림교회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여덟 번째 교회다. 동탄 성전의 부지 매입은 2015년이었다.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땅이어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동탄에 거주하는 광림교회 성도들로부터도 교회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교회가 세워질 부지 주변엔 일반 세대가 살고 있었지만 단 한곳의 교회도 없었다. 광림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로 나아갔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7억 원의 선교 약정 헌신이 있었으며, 지난 4월 선교바자회를 통해 3억 원을 우선 헌금했다. 광림의 각 선교회와 위원회, 지교회와 선교구에서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회복의 아프리카를 꿈꾸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건축이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15일 기공예배를 드린 미션센터는 평탄화작업과 담장공사를 마치고 벽돌이 쌓여지며 건물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잠비아 루사카에 위치한 미션센터는 약 4,000평의 부지에 채플, 의료센터, 교육센터, 선교사들이 묵을 게스트하우스 등 5개 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검은 땅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다. 잠비아는 전체 인구의 75%가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애니미즘과 결합돼 있다. 인구의 13%가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으며 조혼의 악습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 미션센터는 복음전파의 사명과 함께 에이즈 치료와 일반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선아 기자

<2022년 2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미래를 위해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리더 양육



지난 9월4일(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2022년 2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 및 수여식>이 열렸다. 장학생들은 저녁예배에 참석해 가족들과 광림교회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장학증서를 수여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장학금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자녀로 대학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때 받

는 성적우수 장학금(10명), 감리교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9명), 서울 남연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10명)으로 29명에게 각각 150~200만원씩 총 5,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광림장학금은 기념장학금과 기업장학금, 전교인 매월 1만 원 장학금, 장학위원들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1999년에 시작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장학금을 수여한지 23년이 되었고, 총 2,200여명에게 28억원이 지급되었다.

신성수장로(장학위원회 위원장)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장학 사업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리더를 양육하는 사업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교회 장학 사업을 통해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광림남교회 성적우수장학생 윤동준 학생은 “장학금을 수여해준 광림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광림장학생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학업에 열심히 임하며, 훌륭한 사회지도자가 되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포토 뉴스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 시 25:4 주제를 9월 6일 개강했다.



여선교회 추석 모듬전 판매
여선교회는 동탄성전 건축을 위한 추석 모듬전을 판매했다.



제33회 평신도수련회
남선교회 서울남연회 주관 제33회 평신도수련회가 8월24일(토) 광림수도원에서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8/29~ 몽골감리회 목사 안수예식 및
- 9/1 준회원 허입식
- 9/2 서울남연회 준회원 보충교육
-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
- 9/4 여선교회 월례회
- 장학금수여식
- 9/6 트리니티성서대학원 개강
- 9/7 강북지방 평신도선교대회
- 9/8 나세남 목회자교육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에게 사랑을 베풀다

사회사업위원회, 9월 7일 사랑의 돌봄 행사 가져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제환 장로)는 9월 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유제석목사는 “한가위를 맞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회사업위원회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하루 전까지 한반도에 찾아온 태풍으로 인하여 행사 진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행사일인 수요일 당일에는 태풍도 지나가고 비

도 그쳤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이른 시간이지만 지하철 압구정역 도착시간에 맞춰 어르신들이 하나 둘 장천홀 입구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많은 사람들로 길게 줄을 섰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오는 즉시 바로 배려해 준다.

광림교회에서 10여년 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실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한차례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격월에 한번 또는 명절이나 성탄절 등에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 행사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초창기부터 봉사를 한 박영노 권사는 “예전에는 장천홀 로비에서 따뜻한 차를 주면서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90대 할아버지나 성경구절을 줄줄 외는 어르신이 기억에 남는다. 멀리 파주나 의정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은 항상 보이던 나이든 얼굴 대신 다소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50대에서도 온다”고 했다.

어르신들에게는 사탕, 떡, 두유, 한방파스 및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해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6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

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200명이 조금 넘게 찾아 온다.

선물 중에 성경구절로 포장된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이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안병철 권사가 본 사직원 3명과 함께 봉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였다. 7년 전부터 추석 등 명절에 자원하여 헌신하고 있는 안 권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 남을 돕고 또 봉사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베풀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최제환 장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갖는 회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 많은 도움을 준 안병철권사 뿐 아니라 이른 새벽에 나와 주신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청장년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다

아름다운 청장년 캠프, 9월 3~4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2022년 아름다운 청장년 캠프(이하 아청캠프)가 9월 3~4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캠프는 역대급의 강한 태풍이라는 ‘한남도의 복상으로 오전부터 오락가락 빗줄기가 내렸고, 추석을 앞둔 시기가 교통 체증도 심했기에 모이기 어려운 불안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아청캠프는 분당 뿐 아니라 지교회, 또 올해 처음 분리된 청장년 1부도 20명 이상 참여하며 캠프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기훈, 신훈, 미훈, 거기에 아이와 지교회 성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에 모든 이가

만족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캠프를 만들어가실 것을 믿고, 시작 25일 전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 핸드폰의 알람을 맞추고, 정해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번 아청 캠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의 참석과, 가장 만족한 캠프 프로그램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 시간대 진행되어 여러 세대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아빠는 운동장에서 축구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신혼 부부는 인근 카페 투어를, 엄마는 다과와 함께 한 나눔의 시간, 미훈 청장년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재미와 의미, 모두 충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운동하길 원하는 남성 분들도 매우 즐거워 했고,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여성 분들도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며 준비했던 분들도 함께 기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3번의 집회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짧은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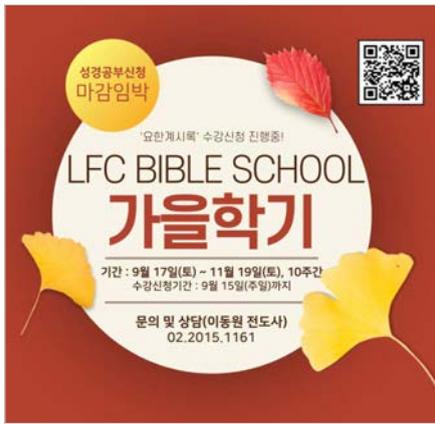
회 예배가 아닌 낮 집회, 안수 기도가 있는 저녁 집회, 성만찬과 함께 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집회 때 가나안 땅을 동경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아름다움을 넘어 동서남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한국의 청장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 후 캠프 파이어의 시간도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 마음을 되새기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고, 남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장년(靑壯年)은 푸르고 인품이 훌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젊기에 기성 세대를 돌보고, 인품이 훌륭하기에 다음 세대를 이끍니다. 그래서 청장년들을 브릿지(Bridge)라고도 합니다. 다리처럼 잇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면 교회와 공동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장년을 위해 함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성경의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청년 공동체

청년부 가을학기 LFC BIBLE SCHOOL - 요한계시록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foot for the earth, head for the heaven)라는 경구처럼 오늘 이 땅이라는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9월 17일(토)부터 11월 19일(토)까지, 10주간 LFC(Bible School)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회봉

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LBS 찬양팀의 찬양과 강의,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를 들은 뒤 참여자들은 매주 새롭게 꾸려진 조 모임을 통해 강의에 대한 소감과 결단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지)과 감동(정), 실천(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22년도 가을학기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개론을 3주간 배우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오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LBS 찬양팀의 정세호 형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 말씀과 다른 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사랑하며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게 될 줄 믿으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LBS 가을학기를 신청한 성원제 형제는 “LBS를 들으면서 항상 기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더욱 탄탄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였던 것처럼, 이제 광림교회 청년부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가을학기 LBS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어떤 상황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9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2022년은 많은 일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1월에 장기 근속 중이던 팀장님의 이직과 코로나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회사에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해 개인 시간을 즐겁게 보내지 못했으며, 지속되는 야근과 특근에 점점 지쳐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동역자들과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던 시간들과 예배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동역자가 보내주는 묵상 말씀들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CCM을 감상하며 힘든 몸과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증거하는 간증의 영상들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말과 평일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바쁜 시간들이 지속되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느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월 말에는 3년에 한번 예정되어 있는 식약처 감사를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8월에는 국내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청년부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내 선교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은 올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이 한차례 지나갔으나, 현재도 사실 일에 허덕이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 및 퇴사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제 삶이 선택되고 그에 따른 결과에 감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신문철 성도(청년부)

2022년 교회학교, 사랑부 여름행사 보고 예배

‘쉐마! 말씀으로 돌아가자’



8월 28일 주일 저녁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2년 여름행사 보고 예배>가 교육부 주관으로 드려졌다. 찬양 예배로 드려진 저녁 예배에는 사랑부와 교육국 교사, 영아부부터 고등부, 어와나, 영어예배부 까지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여름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비전랜드와 교회 밀레니엄 광장에서 야외활동을 하며 무사히 진행되었기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 이번 보고 예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며 “여름 행사를 통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

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시대를 넘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학교가 되자”라고 권면했다.

실교 후에는 사랑부와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진행 영상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시청했다. 이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와나, 영어예배부 학생들과 사랑부, 교육국 교사와 목회자가 특송 ‘들으라’를 함께 찬양했고 힘차게 “쉐마!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구호를 외쳤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예배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에게 “한국교

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지만 광림교회 교회학교가 꾸준히 모이고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교회학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를 잘 만드는 교회학교가 되면 좋겠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학교로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란다. 통계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희소한 평균나이는 20세 미만이다. 우리교회 교회학교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도를 잘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 세상을 밝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희운 기자

목회현장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강태석 목사(국립경찰병원)

살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광림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래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관리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경찰병원교회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미루었던 주중 봉사 재개를 계획하는 등 일상의 회복에 가슴을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이종의 출현과 재감염이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병원교회는 지난 7월 9일(토) 경찰병원 신우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여주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재개된 의료봉사였고, 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였기에 병원 직원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이 있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터라 봉사 현장은 의료팀과 마을 주민 그리고 봉사자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편 병원 당국은 선교 및 목회 활동 전반에 걸쳐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 평일 오전 오후 입원실의 목회적 방문이 재개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 전일 오후에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동역을 멈추었던 교회와 선교회원들이 다시금 주일 예배를 섬겨 주셔서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환자실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립경찰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전담 병원 재지정 등으로 인해 간신히 재개된 예배가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또한 지난 번 폭우로 인해 교회 내부 여러 곳에 누수가 있는 차에 태풍 예보가 있어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석 감독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중보기도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교회를 통한 경찰선교가 더욱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중추절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광림서교회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



광림서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송이꽃 성경동화'를 제작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송이꽃 성경동화'는 광림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성경 동화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고, 오히려 성경

동화를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이봄사내 집사님은 "성경동화를 읽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박지혜 청년은 "성경 동화에 동참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읽었던 성경 동화들이 생각나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송이꽃 성경 동화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 동화 제작에 힘써주시는 박소연 선생님과 유인근 성도님은 "새로운 성경동화를 영상으로 만들 때 마다 성경공부가 되었고, 아이도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정말 즐거워해서 기뻐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앞으로 남은 동화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시 119:105)"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과 지식이 아닌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청년부, 몽골 청년들과 예배와 전도



광림북교회의 청년부는 현재, 한국인과 몽골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유학 와서 전도사로 섬겨주시는 미가 전도사를 통해 나라와 상관없이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또

한 몽골청년들에게는 커뮤니티를 통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청년들 중에서는 몽골 광림미션센터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 학생들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후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원과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광림미션센터를 통해 맺은 선교의 열매가 다시 북교회에 씨앗으로 심겨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광림북교회 청년부는 자연스럽게 몽골 광림미션센터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진 광림미션센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북교회의 청년부가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10선교구

강화 최초의 신앙공동체 교산교회를 가다



1893년 어느 날 밤, 달빛이 내리는 한 나루터 선상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미감리회 소속 존스 선교사는 인천을 거점으로 강화 선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강화 사람들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며, 서양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물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승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향 강화 서산면 시루미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에게 모친에 대한 세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육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밤,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업고 배로 오게 하고, 선상에서 세례를 주어 강화 최초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교산교회가 세워지고, 강화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28교구 마리아선교회 회원들은 강화 최초의 신앙공동체 교산교회를 방

문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자녀들의 방학으로 인해 그동안 모임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자녀들이 개학을 하여 모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산교회 내 강화 초기 기독교선교역사관을 둘러보고, 역사자료를 시청하며, 이곳에서 마리아선교회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선교적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8교구 마리아선교회 모임을 통해 복음에 빛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익숙해져서 잠시 잊어버린 믿음의 선배들이 지닌 복음의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회 모임을 통해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유리 집사(28교구)

영적 성장을 위한 가을학기 교육프로그램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광림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주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강을 앞두고 있다. 광림교회 성경공부는 다양한 강좌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영적 성장을 도우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소현수 기자

속회지도자 교육

속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배 공동체이며 교육을 통한 신앙의 성숙과 말씀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깨달아 가는 친교의 장이다.

기준에 선교구별로 모이던 속회지도자교육이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통합되어 나사렛 성전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광림 4Steps 평신도지도자 교육

광림교회 영적리더(임원, 속장, 선교회장)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1단계 Knowing Jesus → 2단계 Following Jesus → 3단계 Serving Jesus → 4단계 Living Jesus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2단계, 3단계 강의와 조별 나눔을 진행한다. 평신도지도자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부름받은 리더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제자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는다.

츄즈라이프(Choose Life)

츄즈라이프는 “생명을 선택하라”(신 30:1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참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신약의 강>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전반의 문화와 지리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어번던트라이프(Abundant Life)

어번던트라이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경공부로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종교개혁, 한국 교회사, 묵상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예비 속장, 속장뿐 아니라 속회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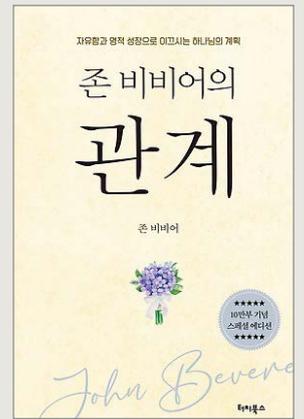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유양겔리온 전도학교는 프레시온 전도학교의 후속 과정으로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도가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된다.

강 의	일 시	장 소	강 사
속회지도자 교육	9.6~11.22 매주 화요일 10:00~10:50	나사렛 성전	김정석 담임목사
Step 2 평신도지도자 교육	9.18~11.20 주일 오후 2:00~4:00	사회 봉사관 4층 A홀	유제석 목 사
Step 3 평신도지도자 교육	9.18~11.20 주일 오후 2:00~4:00	본당 1층 벤엘성전	박중섭 목 사
츄즈라이프 Choose Life	9.18~11.20 주일 오전 9:00~10:00	두란노 강의실	선영진 목 사
어번던트 라이프 Abundant Life	9.18~11.20 주일 오전 11:00~12:00	두란노 강의실	김정우 목 사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9.18~10.9 주일 오후 2:00~4:00	장천홀	김우진 목 사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존 비비어의 관계]

존 비비어 지음

이 책은 관계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전달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실족케 하는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마틴 루터의 기도]

마틴 루터 지음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주했지만 바쁜 기에 더욱 기도한다고 즐겨 말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네 시간씩 기도하며,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루터는 이 책에서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생활을 말하고 있다. 주기 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문의: 양경순 장로(010 8545 1945)

 양경순 장로

광림영어성경원 EBA(English Bible Academy)개강

양의문에서 주일 오후 2시, 요한계시록 강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계 1:3

광림영어성경원이 문을 연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EBA(English Bible Academy)는 2009년 가을학기에 영어와 성경을 사랑하

는 성도들에 의해 EBC(English Bible Class)로 시작하였습니다. 10주년이 되는 2019년 가을학기에 소모임 Class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Academy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광림교회의 양육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매체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이해와 실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어공부와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분은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매년 2번 봄학기과 가을학기에 12주씩 진행됩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외대 영어대학원장을 역임한 이선우 교수님의 명쾌하고 열정적 강의와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 그리고 학구열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강 첫 학기인 2009년 2학기에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봄학기에는 주로 구약, 가을학기에는 신약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은 창세기를 비롯하여 15권을, 신약은 이번 학기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26권 전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계시론적 변혁을 볼 수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점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빛모섬에 유배 당시에 쓰여 졌고 저작 연대는 AD 95-9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으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어 영어공부는 물론 성경지식과 교수님의 명확한 설명을 통한 요한계시록 이해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은 유튜브 영상(YOUTUBE 영어성경 이선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17일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미루어왔던 가평소재 필그림 하우스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영적순례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므로 풍성한 열매 맺는 2022년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6



산상의 은혜로운 설교 마 5:1~2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마땅한 장소를 잡을 수가 없었다. 예수는 산으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을 향하여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지켜볼 수가 있었다. 예수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서자 제자들이 겺으로 다가왔고, 군중들은 그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다.

비로소 예수는 입을 열어 여덟 가지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로운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흡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팔복(八福)이다. 산상수훈은 도덕적 삶을 가르치는 그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무척 쉽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핵심은 말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가르치려 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예수는 울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그렇지 않소.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죽인다고 욕을 해도,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불륜 관계만이 간음인가요? 마음에 음욕(淫慾)을 품은 것으로 이미 간음죄입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리시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이나 손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예수의 법, 이것이 ‘하나님이 법’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마시오. 오히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게 하시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군중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어떤 율법 학자도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도 모르고,

◀ 기도하는 손_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주기도문’을 연상하는 작품이다.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북유럽 르네상스의 완성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이다. 화가들이 인체를 그릴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손’이다. 당시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손을 함께 그리면 비용을 더 받았다고 한다. 이 작품은 자신을 위해 몰래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감격한 뒤러가 친구의 손을 그린 작품이다. 비록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의 마디마디마다 절절한 감정이 배어 나온다. 뒤러는 선을 덧칠하지 않고 선의 간격으로 명암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동판화 작품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른다면 원수도,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는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도운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됩니다. 나의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나의 왼손이 모르게 하시오.”

기도는 유대인 생활의 일부다. 그들은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꿀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시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한다는 티를 내지 마시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들으십니다.”

또한, 예수는 간략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_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비유와 말씀으로 일깨우는 장면이다.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 작품.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셨으니,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림뉴스레터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